

과감한 몸싸움... 거침없는 플레이

## 신인 이찬동, 물건이네

광주FC의 신인 이찬동(21)에게 2014년 3월 22일은 평생 잊지 못할 날이 됐다.

대구스타디움에서 열린 K리그 칼린지 광주FC와 대구FC의 개막전, 신인 이찬동은 쟁쟁한 선배들과 어깨를 겨누며 그라운드를 뛰었다. 스타팅으로 나선 그는 후반 30분 송한복과 교체될 때까지 75분간 가슴벅찬 데뷔전을 치렀다.

이찬동은 2014 신인 드래프트에서 2순위로 가장 먼저 광주의 선택을 받은 아주대 출신의 수비형 미드필더다. 183cm, 80kg의 다부진 체격을 바탕으로 몸싸움이 좋은 그는 빨리 프로에 도전하고 싶어서 3학년이었던 지난해 드래프트 무대에 나왔고, 광주의 선수가 됐다.

이찬동이 평가한 자신의 데뷔전 점수는 50점. 열심히 뛰면서 팀

22일 대구FC전 인상적인 데뷔

“두근두근 첫경기... 자신감 생겼다”

플레이를 하려고 노력했던 점수가 50점, 나머지는 천천히 채워가야 하는 점수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짧은 점수를 줬지만 사실 이날 이찬동은 과감한 몸싸움과 거침없는 플레이로 큰 박수를 받았다. 물론 아찔했던 실수도 있기는 했다.

이찬동은 “쉬운 공을 빨리 처리했어야 했는데 그 부분에서 아쉽다. 공을 빼면서 역습을 당하기도 했다. 뒤에서 제발 공을 넣지 말아달라고 막 기도를 했었다”고 말했다.

대구 조형의에게 골키퍼와의 1대1 찬스를 만들어준 실수. 다행히 실점을 하지 않았지만 광주에게는 아찔한 장면이었다. 팀이 경기 시작 4분 만에 골을 넣고도 역전패를 당한 것도 이찬동에게는 큰 아쉬움이다. 자신의 프로 데뷔전에도 마음껏 웃지 못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그래도 가슴 두근거리는 기쁨과 자신감을 얻었다.

이찬동은 “경기에 나간다고 했을 때 정말 기분이 좋았다. 생각보다는 긴장이 안돼서 더 자신있게 경기를 할 수 있었던 같다. 감독님과 선배님들이 실수를 해도 괜찮으니까 고개 숙이지 말고 그 다음 행동을 하면 된다고 자신감 있게 하라고 격려 해주셔서 더 힘이 났다”고 말했다.

또 “신인이고 경험이 없어서 차이가 날 줄 알았는데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얻었다. 프로라서 플레이 자체가 다르기는 하지만 든든한 선배들과 경기를 하다 보면 많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 계속 그라운드에서 뛰면서 좋은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광주 FC 미드필더 이찬동

## ‘금5’ 광양시청 볼링팀, 이 기세로 인천까지

## 전국 남녀종별 선수권 대회

## 최복음·류지훈 각각 3관왕

광양시청 볼링팀이 시즌 첫 대회에서 금메달 6개 중 5개를 들어담았다. 최복음(사진), 류지훈(사진)이 각각 3관왕에 오르는 등 태극마크들의 활약이 눈부셨다.

국가대표를 책임지고 있는 이춘수 감독이 이끄는 광양시청 볼링팀은 지난 17일부터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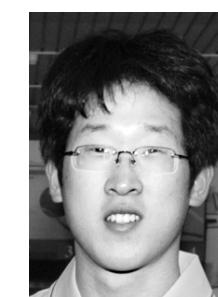
일까지 대구 대경볼링장에서 열린 ‘제33회 대한볼링협회장배 전국 남녀종별 볼링 선수권대회’ 남자 일반부에서 6개의 금메달 중 5개를 획득했다. 동메달도 1개 챙겼다.

국가대표 삼비군 류지훈은 정확한 스트로크와 두둑한 배짱을 앞세워 마스터즈와 개인전, 3인조(최복음·류지훈·박종우) 경기에서 우승해 3관왕에 등극했다.

최복음은 차인호와 짝을 이뤄 2인조 정상에 올랐고, 3인조·개인종합에서도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아쉽게 5인조(최복음·류지훈·황동준·차인호·정원호)는 동메달에 그쳤다.

이춘수 감독은 “올해 첫 대회를 잘 치러 기쁘다”며 “기세를 몰아 최복음·박종우를



최복음



류지훈

인천아시안게임 대표로 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이 감독은 “올해 전국체전에서 볼링 5개 전종별을 석권해 2009년 전국체전의 영광을 재연하겠다”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아디オス’ 김연아... 5월 은퇴무대

‘피겨 여왕’ 김연아(24)가 자신의 은퇴 무대로 꾸며지는 5월 아이스쇼를 ‘아디オス, 그리시아스(Adios, Gracias)’라는 주제로 준비한다.

김연아의 매니지먼트사인 올댓스포츠는 5월 4~6일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특설 아이스링크에서 열리는 ‘삼성 갤럭시★스마트에어컨 올댓스케이트 2014’의 주제를 25일 발표했다.

쇼의 주제인 ‘아디オス, 그리시아스’는 ‘안녕, 고마워’라는 뜻의 스페인어다. 김연아가 현역 선수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받은 팬들의 사랑에 고마움을 전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올댓스포츠는 이번 주제 선정에 김연아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주제에 맞춰 이번 아이스쇼에서는 김연아가 감사의 무대를 꾸미고, 팬들도 반대로 김연아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는 시간을 마련해 서로 교감한다.

김연아가 선수로서 걸어온 길을 조명하면서 공식적으로 은퇴를 알리고, 새 출발을 축하하고 응원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아이스 입장권은 4월 1일 오후 7시부터 인터파크 티켓(ticket.interpark.com, 1544-1555)을 통해 판매된다. 자세한 프로그램과 입장권 가격 등을 추후 공지한다. /연합뉴스



## ‘엑스타 슈퍼챌린지’ 30일 영암 F1서킷서 개막

아미추어 모터스포츠 대회인 2014 엑스타 슈퍼챌린지가 오는 30일 영암 F1서킷에서 열린다.

슈퍼레이스가 주최하고 금호타이어가 후원하는 이 대회는 10월까지 영암 코리아 인터내셔널 상설서킷에서 시작해 강원도 인제, 태백 등을 돌며 총 7차례 경주가 펼쳐진다.

스피드와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다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30일 첫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들에게는 한국자동차경주협회 공식 라이선스를 발급한다.

김의수, 김동은, 황진우, 정연일, 최해민 등 국내 정상급 드라이버들이 아마추어 선수들에게 드라이빙 기술을 전수하는 시간도 갖는다.

스프린트 1위에게 상금 300만원, 타입트 라이얼 1위에게는 상금 200만원을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엑스타 슈퍼챌린지 홈페이지(www.superchallenge.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산행안내  
해외 및 섬은 계재기... 불가합니다.(복지민 기준)

3월 27일(목)

▲블랙아크 100대 명산탐방 3월 27일(목) 진안마미산 산행, 07:30 염주상무정관너번, 07:40 교원공제, 07:50 문예후문, 08:00 봉광주불락아크 \*다음가 페 빛고을블랙아크목요산악회 010 3619 3533

3월 29일(토)

▲광주진주봉토요산악회 3월 29(토) 하동 황장산 삼전 강경류 병개사 화개암리 봉꽃길, 07:20 봉선동 남구 문예회관앞, 07:30 진월동 신진마트, 염주동 모아네 포츠월 베네치아 07:40, 삼평회의소 맞은편 07:50, 교원공제 회관앞 07:55, 문예회관 후문 08:00, 비엔날레주차장 08:05, 각화동 그린경례식장 맞은편 08:15 \*다음가 페 광주진주봉토요산악회

4월 1일(화)

▲광주까지산악회 4월 1일(화) 완주 사달산 문밀봉 연석산, 봉데미트월드컵주차장 07:20, 동아병원 앞 07:30, 교원공제 앞 07:40, 문예후문 07:50, 비엔날레주차장 08:00 \*다음가 페 광주사랑산악회

4월 2일(수)

▲광주청룡산악회 4월 2일(수) 경남 하동 황장산 삼전 강경류 병개사 화개암리 봉꽃길, 07:20 봉선동 남구 문예회관앞, 07:30 진월동 신진마트, 염주동 모아네 포츠월 베네치아 07:40, 삼평회의소 맞은편 07:50, 교원공제 회관앞 07:55, 문예회관 08:00, 비엔날레주차장 08:05, 각화동 그린경례식장 맞은편 08:15 \*다음가 페 광주청룡산악회

4월 30일(일)

▲한울산악회 3월 30일(일) 군산 선유도, 남광주농협 06:30, 문예회관후문 07:00, 비엔날레 07:05 \*내네 이어카페 한울 010 3626 5234, 010 4328 7700

4월 27일(목)

▲광주진주봉토요산악회 3월 27일(목) 진주 진주봉 07:00, 문예회관 07:15, 교원공제 07:30, 문예후문 07:45, 비엔날레주차장 08:00 \*다음가 페 광주진주봉토요산악회

4월 29일(토)

▲한울산악회 3월 29일(토) 군산 선유도, 남광주농협 06:30, 문예회관후문 07:00, 비엔날레 07:05 \*내네 이어카페 한울 010 3626 5234, 010 4328 7700

4월 30일(일)

광고신청 및 계약문의 227-9600 구독신청 및 배달하고 220-0551

광고신청 및 계약